

낮엔 순천 밤엔 목포 가장 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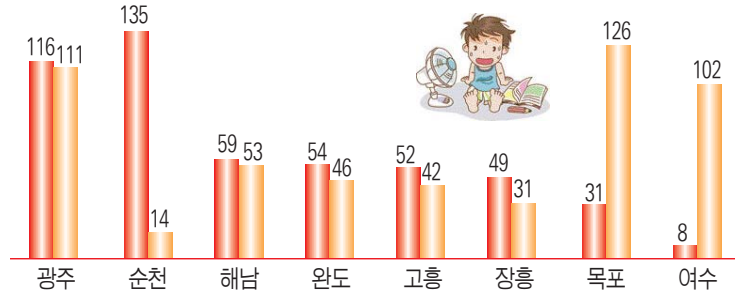
■ 광주일보, 10년간 폭염·열대야 기록 분석

광주는 '열섬현상' 밤낮없이 더워

지난달 말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폭염과 열대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7월 말부터 이어진 폭염이 6일째 이어졌고, 열대야는 올 들어 14번이나 발생했다. 장흥에서는 지난 2일 낮 한때 수은주가 34.7도까지 치솟아 올 여름 광주·전남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에서 가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곳

은 어디였을까. 또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가장 많이 설친 곳은 어디였을까. 본보는 광주·목포·여수·완도·순천·장흥·해남·고흥 등 광주·전남 8개 지점의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의 7·8월 폭염과 열대야 기록 등을 통해 지역별 더위 실태를 살펴봤다. <낮시간 최고 '짙통 더위' 순천, 광주=최근 10년간 광주·전남서 33도 이상의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 최근 10년간 지역별 폭염·열대야 일수 (7·8월 기준)



곳은 순천으로 135일에 이른다. 광주가 116일로 뒤를 이었고, 해남 59일, 완도 54일 등을 기록했다. 반면, 목포는 31일, 여수는 8일에 불과했다. 순천과 광주가 여수·목포 등에 비해 폭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26.3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이상 높았다. 올 들어 광주에 폭염이 이어진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도

심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목포와 광주, '잠 못드는' 열대야 극성=최근 10년간 광주·전남서 열대야(하루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목포가 126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111일, 여수 102일 등이었다.

폭염이 적게 발생한 여수·목포에서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것은 해안 도시는 낮에는 수분이 많아 기온이 천천히 오르고 밤에도 수분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이 더디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전남에서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순천은 10년간 열대야가 14일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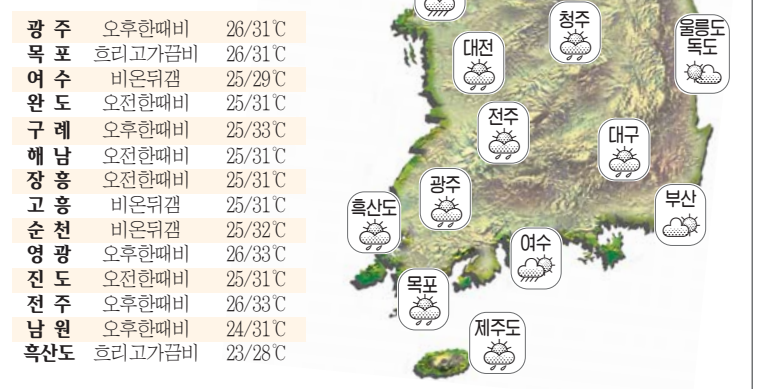
이 가운데 광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는 '열섬현상'에 기인한다. 도시와 주변과의 피복차, 인공열의 발생, 건물 밀도의 차이, 온실 기체에 의한 온실 효과 등으로 인해 낮과 밤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5분 해질 19시 31분 달뜨기 01시 05분 달짐 16시 12분

우산 챙기세요



지역	기온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광주	오후한대비 26/31℃				
목포	하리고기름비 26/31℃				
여수	비온뒤맑 25/29℃				
완도	오전한대비 25/31℃				
구례	오후한대비 25/33℃				
해남	오전한대비 25/31℃				
장흥	오전한대비 25/31℃				
고흥	비온뒤맑 25/31℃				
순천	비온뒤맑 25/32℃				
영광	오후한대비 26/33℃				
진도	오전한대비 25/31℃				
전주	오후한대비 26/33℃				
남원	오후한대비 24/31℃				
목산도	하리고기름비 23/28℃				

홍통 발생 → 심근경색 인체부착 경보시스템 작동 → 심장상태 정보 조선대병원 심장센터 이송 → 위급관정시 환자이송 및 수술준비 → 심혈관 촬영 및 중재술

*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이후 진단까지 1시간 소요됐던 기존 과정을 15분 내외로 단축

심근경색 경보기 부착 조기구조 체계 갖춘다

조선대, 80억 지원받아 진단시스템 구축 나서

조선대가 돌연사 위험에 시달리는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 상태를 인체 부착 기기를 통해 실시간 체크·관리 하고 이상 발견시 최단시간 내에 시술에 착수해 생명을 건지는 진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이송 도중에 숨지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반면, 병원 도착 후에도 15% 정도가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심근경색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의료 진단 시스템과 환자의 심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심장센터로 전달하는 IT연구를 접목, 최종적으로 심근 경색 수술 여부 결정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5분 정도로 단축하는 진료 시스템 연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령인의 순환계 급성 기능 장애 예방을 위한 생체위험감지기술' 연구사업에 선정돼 2015년까지 총 80

소나기도 폭염 못 식혀

광주·전남 오늘 33도 무더위·열대야

6일 광주·전남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5일 예보했다.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물놀이하기 전 심폐소생술 교육

곳이 있겠으며, 해안지방에는 새벽이나 아침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강수량은 5~40mm.

6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열대야와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와 나주·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에는 5일까지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다.

6일 낮 한때 내릴 소나기는 더위를 식히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7~8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짙통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최저/최고	26/33	25/33	25/32	25/31	25/33	26/33

2010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개최

5·18기념재단 9~27일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가하는 '2010 광주아시아인권학교'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창선)과 공동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아시아의 현안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태국·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대만·호주 등 아시아지역 14개국에서 2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인권학교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을 다룰 예정이며, 5·18 진실규명 관련 특별법과 책임자처벌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서울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세대학교 등 방문강사가 있으며, 광주에서는 5·18 사적지 순례와 관련 강사가 진행된다.

5·18기념재단 교류지원팀 김찬호 팀장은 "이번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는 전 세계 250여명의 활동가가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광주와 5·18이 이미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外高설립 논의 지역협의체 첫 회의

광주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논의할 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 광주시의회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5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 외고 설립과 관련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민주·남구2)을 비롯해 정희곤 교육위원장, 김선호 교육의원, 김정섭 장휘국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기획위원, 김대준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협의체는 이날 말 2차 회의에 이어 9월 초 시민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용량)

- 총 21인실, 선부, 가족2인실, 4인실, 6인실
- 소규모(10인): 학원학사, 복합점점점점, 30인실, 20인실, 30인실
- 대규모(20인): 10인실, 10인실, 10인실, 10인실, 10인실, 10인실

062)671-1199

전북장터

전북지역 특산물 판매

062)576-8600